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9년 2월 4일
(월요일)

시사프리신문 4면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주차난 해소 소규모 평면주차장 건설 대비 구비 예산확보' 제기!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무소속/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제

22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지난달 23일에 개최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 구정업무보고 자리에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규모 평면주차장 건설을 대비해 구비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올해부터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제기했다.

그동안 다수 추진해 온 대규모 입체식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서 여러 절차 및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등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한 마을의

노후주택을 협의, 매수하여 소규모 평면식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고 검토됐다.

이와 관련 2018년 9월 5일자로, 서울시 주차계획과는 '소규모 평면식 주차장 건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여러 개소의 대상지를 통합하여 추진이 가능하고 시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이에 강북구는 2019년에는 사업가능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2020년에는 투자심사 포함한 시비를 요청한 후 가능한 대상지를 협의, 매수하여 공사를 시행

할 계획이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2019년~2023년)에는 인수동, 삼양동, 수유3동, 수유1동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과 예산이 반영됐는데, 소규모 평면주차장 건립 계획과 구 부담률(40%)에 해당하는 구비 예산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고 계획된 동별 공영주차장과 소규모 평면주차장 건립을 위해서는 올해 추경예산부터 주차장 건설 구비 예산 편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